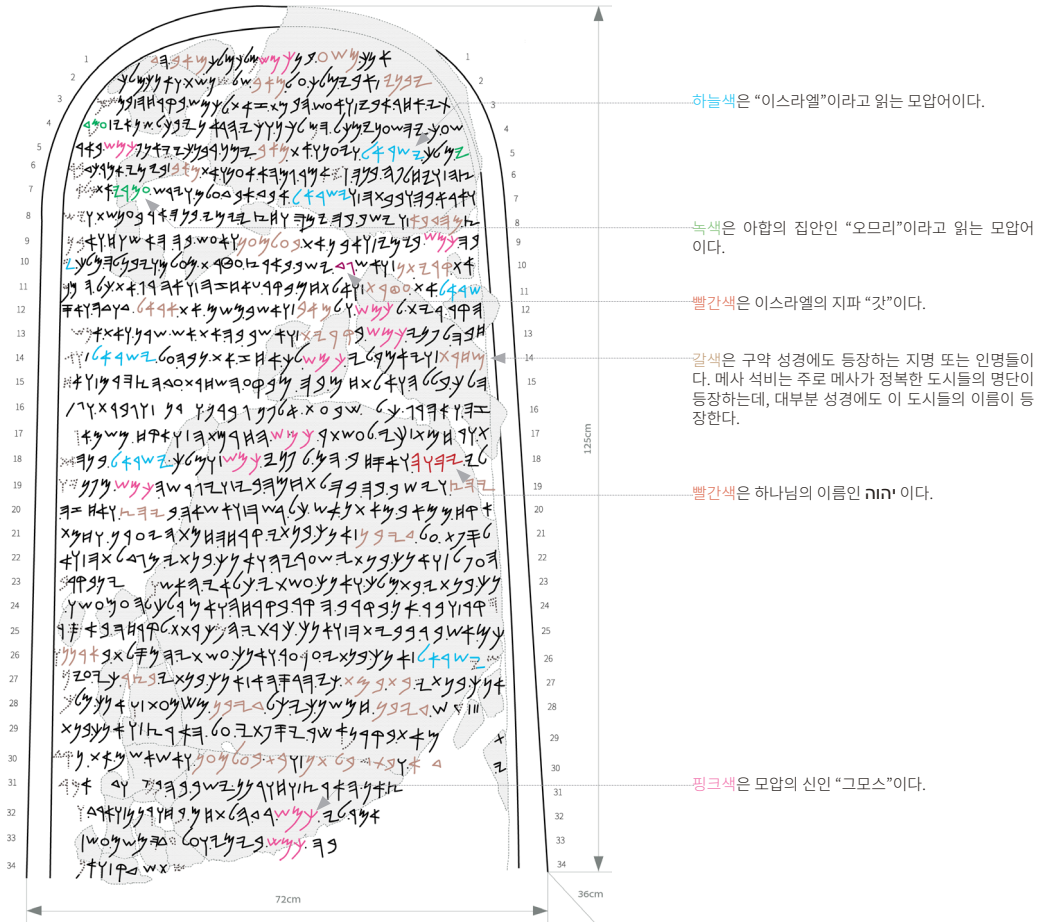


저작권 없음 공지. 이 문서에 대한 **재 배포를 환영** 합니다. 글, 그림, 사진 등은 **상업적인 용도**가 아니라면,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본 BIBLIA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소식, 그리고 학술적인 소식에 쉽게 접근하기 힘든 **미자립 교회나 소형 교회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대형교회에서 이 자료들을 사용하기 원하신다면, BIBLIA에 후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 후원에 대해서는 www.biblia.co.il 에서 About BIBLIA 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사 석비

고고학은 과거의 이야기를 역사로 바꾸어 놓는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이런 신비한 힘을 존중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고학자들, 그리고 성서학자들에게는 땅 속에서 나온 유물들이 가치를 매길 수 없으리 만큼 가슴벅찬 숨쉬는 생명체이며, 인류가 함께 소유해야만하는 선물이지만, 누

군가에게는 그저 경제적인 가치로만 그것을 판단할 뿐입니다. 이 좋은 예가 디본(Dibon: 사해 동쪽 요르단의 마을)에서 있었습니다.

19세기 말은 전문 고고학자, 또는 아마추어 고고학자들이 활발하게 고대 서아시아 지역의 유물을 발굴하던 시기였습니다. 특별히 아마추어 고고학자로 분류할

수 있는 개신교 선교사들이나 로마 카톨릭, 정교회 성직자들, 그리고 베두인들은 성경과 관련된 유물을 찾기에 열정적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해서는 지나치게 경쟁적이었던 것이 문제가 되던 시기였습니다. 1868년 클라인 Klein 선교사에 의해서 세상에 알려진 “메사의 석비” Mesha Stele 는 바

메사 석비 번역

1행 나는 메사, 그모스의 아들이자 모압의 왕이며 디[본 사람이다.]
 2행 [디]본 사람이다. 나의 아버지는 왕으로 모압을 30년간 다스렸다. 그리고 나는 [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3행 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나는 케리코 Qrçhh 에 그모스를 위해 이 산당을 만들었다.
 4행 왜냐하면, 그가 나를 모든 왕들로부터 구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가 내 모든 적들을 굴복시켰기 때문이다. 오므[리는]
 5행 [오므]리는 이스라엘의 왕이었다. 그는 오랜 날 동안 모압을 압제했다. 왜냐하면 그모스가 자기 땅에 화가 났기 때문이다.
 6행 그의 아들이 그를 이었다(그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그 역시 “나는 모압을 압제하겠다.”고 말했다. 나의 날에 그의 말대로 했다.
 7행 그러나 나는 그와 그의 집을 업신여겼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폐허가 되었다. 그렇다! 영원히 폐허가 되었다. 오므리는 [메데바의 모든] 땅을 소유했다.
 8행 메데바 Medeba 의 [모든 땅을 소유했다.] 그리고 그의 날에 그곳에 살았고, 그의 아들은 그의 날의 반인 40년을 (그곳에서) 살았다.
 9행 그러나 그모스는 나의 날에 회복시켰다. 그리고 나는 바알 메온 Baal Meon 을 건축하였다. 그리고 물 저장고를 만들고 [키라텐 Qrytn 을] 건축하였다.
 10행 키라텐 Qrytn 을 [건축하였다.] 갓 (지파) 사람들이 아타롯 Atarot 땅에 오래 전부터 살았고, 이[שראל의] 왕은
 11행 [이]שראל의 왕은 아타롯 Atarot 을 건축하였는데, 나는 그 도시와 싸웠고 정복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죽였다
 12행 그모스와 모압을 위해 희생제물로 그 도시의 ... 나는 그의 삼촌(?)의 화로(향단/번제단?)를 그곳에서 가져다가
 13행 그리옷 Qeriot 의 그모스의 앞으로 옮겼다. 나는 샤론 Sharon 사람들을 그곳에 살게 하였고, [마하롯 Maharit] 사람들도 그렇게 하였다.
 14행 마하롯 Maharit [사람들도 그렇게 하였다.] 그모스가 나에게 말하였다. “가라, 이스라엘로부터 느보를 취하여라.” 그래서 나는 [갔다]
 15행 [나는] 밤에 갔다. 그리고 새벽부터 낮까지 싸웠다. 나는 짐[령하였다.]
 16행 나는 [짐]령하였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죽였다. (그 수는) 7,000명의 남자... 그리고 여자... 그리고...

17행 여종들을 (죽였다.) 왜냐하면 내가 아쉬타르 그모스를 위해서 제물로 구별해 놓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여호와와 ...을] 탈취하였다.
 18행 여호와와 ... 을 [탈취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그모스 앞으로 옮겼다. 이스라엘의 왕은 [야하스를] 건축하였다.
 19행 야하스를 [건축하였다.] 그리고 그는 나와 전쟁을 하는 동안 그곳에 머물렀다. 그모스는 그를 (내) 앞에서 쫓아냈다.
 20행 나는 200명의 모압 사람들을 데리고 (부대를) 나누어 야하스로 올라갔다. 그리고 그곳을 점령하였다.
 21행 디본에 (야하스를) 복속시키기 위해서 [그곳을 점령하였다.] 나는 케리코 Qrçhh 를 건축하였다. 나무들로 성벽을 세우고, [성채의] 벽을 돌렸다.
 22행 성채의 [벽을 돌렸다.] 문들을 만들고 망대를 세웠다. 나는
 23행 왕궁을 건설하고 [도시] 안쪽에 샘의 물 저장고를 만들었다.
 24행 도시 [안쪽에 샘의 물을 저장하는 시설을 만들었다.] 케리코의 성읍 안에는 물 저장고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다. “[너희] 각 사람들은 만들어라.”
 25행 “너희 [각 사람들은] 집에 물저장고를 [만들어라.]”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의] 포로들에게 케리코의 물길을 두르게 하였다.
 26행 이스라엘의 [포로들]. 나는 아로엘 Aroer 을 건축하고, 아르논 Arnon 에 군사 도로를 닦았다.
 27행 나는 벳 바못 Beth Bamot 을 건축하였다. 왜냐하면 그곳이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베셀 Bezer 을 건축하였다. 왜냐하면 (그 곳)이 폐허(로 남겨졌기 때문이다.)
 28행 디본 (사람들)은 전쟁 명령을 대기하였다. 모든 디본 사람들이 내 수하에 있게 되었다. 나는 왕이다.
 29행 나는 수백개의 마을을 거느리고 있는 왕이다. 나는 땅을 넓혀가고 있다. 그리고 나는 건축하고 있다.
 30행 [나는] (벳 메데)바 Beth Medeba 와 벳 디블라다임 Beth Diblaten 그리고 벳 바알 므온 Beth Baal Meon 을 [건축하였다.] 그리고 거기에 데리고 왔다...
 31행 그 땅의 양들을 [데리고 왔다.] 그리고 그곳에는 하우란 Hauronen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32행 그모스가 내게 말하였다. “내려가라, 하우란 사람들과 싸우라.” 나는 내려갔다.
 33행 그모스는 나의 날에 회복 시켰다.... 그곳으로 부터...
 34행 그리고 나는

* 이 번역은 Smelik, K.A.D. “The Literary Structure of King Meshah’s Inscription.”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46 (1990): 21-30. 을 기준으로 삼았다.

니 하미다 (Bani Hamida) 족이라는 베두인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 땅을 지배했던 **오트만** 제국은 그 석비의 소유권을 제국으로 옮기려고 하였는데, 값비싸게 고고학 유물이 팔려나가던 시절, 베두인들은 정부에 대한 불만과 더불어 정부에 빼앗기기 전에 한 덩이가 아니라, 여러 조각을 내 팔아버리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모닥불을 피워

석비를 달군 다음 차가운 물을 붓고는 단단한 돌로 내려 찍어 석비를 조각내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도우셨을까요? 석비가 깨지기 전, 1869년 10월에 **프랑스인** 동양 학자인 **클레몽-간뇨** (Charles Clemont-Ganneau)가 **예루살렘**에서 사람을 보내어 석비의 탁본을 떠 놓은 것입니다. 깨져버린 **메사 석비**가 **예루살렘**의 유물 시장에서 팔린다는 소문을 듣고는 **클레**

몽-간뇨는 당시 **팔레스타인 탐사 기구 Palestine Exploration Fund**와 유명 고고학자들을 설득해서 그것들을 사들이고는 1891년 **파리의 르부르** 박물관으로 옮겨 이미 떠놓은 탁본에 맞추어 복원하였습니다.

모압어로 쓰여진 **메사 석비**는 **모압 왕 메사**가 자기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모압의 뿌리**를 **소돔과 고**

에블라 (Tel Mardikh) 에서 1974-1976년에 8,000여개의 토판들이 대규모로 발견되기 이전까지, “여호와” (또는 “야웨”)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름이 기록된 가장 오래된 기록물은 메사의 석비였다. 그러나, 에블라에서 기원전 2,500-2,250년 사이에 기록된 토판들에서 발견된 신들의 이름 가운데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인 “야웨”의 고대 서아시아식 이름이 발견되면서, 하나님의 이름의 연대가 아브라함 이전으로 끌어 올려졌다. 이 토판들의 발견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인 יהוה 를 어떻게 읽는지도 알려주었다.

고대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읽지 않아서 “아도나이” (음역. 주님) 라고 불렀다. 시간이 지나면서 יהוה 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잊게 되면서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한 미스테리로 남게 되었다. 유대교인들은 아직도 יהוה 라는 네 글자가 나오면, “아도나이”라고 읽는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아도나이”의 모음을 יהוה 에 붙여 “여호와”라 읽게 되었다. 그러나 셈족들의 이름들이 대거로 소개된 에블라 토판에서 “이아베일루”, “이아우움일루”라는 하나님 이름의 썩기 문자가 해독되면서, 현대 구약 성서학자들은 יהוה 를 “야웨”라고 읽는 것을 지지한다.

	Ia-á-ve-ilu
	Ia-ve-ilu
	Ia-ú-um-ilu

하나님의 이름 יהוה 은 이집트의 문헌에도 등장한다. 이집트 18 왕조 (약 1550-1295 BCE)부터 지중해 동편 이스라엘 골짜기-아쉬켈론-시나이 지역에 이르는 지중해 동쪽 해변가에 살았던 샤수 (Shasu)에 대한 아멘호텝 3세 Amenhotep III (기원전 14세기)와 람세스 2세 Ramesses II (기원전 13세기)의 기록에서는 이들이 살던 땅을 가리켜, “야웨(를 섬기는) 샤수의 땅” 이라고 부른다.

ta 땅 šasww 샤수 yhwaw 야웨

* 에블라에 대해서는 다음의 책을 참조하라. Archi, Alfonso. *Ebla and Its Archives: Texts, History, and Society*. Boston: De Gruyter, 2015.

* 샤수에 대해서는 다음의 책을 참조하라. Levy, Thomas E., Adams, Russell B., and Muniz, Adolfo. “Archaeology and the Shasu Nomads: Recent Excavations in the Jabal Hamrat Fidan, Jordan.” Pages 63-89 in *Le-David Maskil: A Birthday Tribute for David Noel Freedamn*. Edited by William Henry Propp, and Richard E. Friedman. Winona Lake: Eisenbrauns, 2004.

모라가 멸망하던 사건과 함께 롯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창 19:37). **이스라엘**과 혈연 관계에 있는 친족인 겁니다. 하지만, **모압**은 **여호와**와 하나님을 떠나 **그모스**를 섬기는 남이 되어 버렸습니다 (민 21:29). **이스라엘** 보다 더 먼저 왕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왕정 체제를 만들었지만 (민 21:10-20; 신 9:19), 그 왕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었습니다. **민수기** 22장 이하에서 **발람**을 통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 했던 **발락**이 바로 **모압**의 왕이었던 거든요 (민 22-24장).

이 **모압**에 **발락** 만큼이나 알려진 **메사**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모압**은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던 나라였습니다. **모압**은 주로 목축으로 경제 생활을 이어갔는데, 매년마다 새끼 양 십만 마리의 털과 숫양 십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인 **아합**에게 바쳤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죽은 후에 곧 이 조공을 멈추어요 (왕하 3:5). 더 이상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살아가지 않겠다는 선언이지요. **아합**의

아들 **여호람**은 **유다**와 **에돔** 왕에게 도움을 구해 동맹을 맺고 **모압** 정벌을 시도합니다. 이 전쟁에서 벌어진 기적같은 이야기는 **열왕기하** 3장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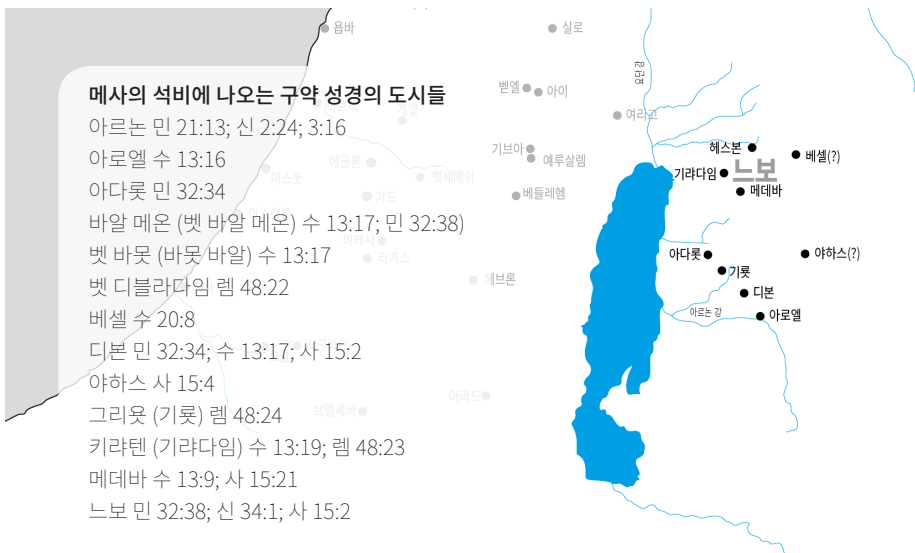
이 전쟁을 끝내고 기록한 것인지, 아니면 이 전쟁이 있기 전, **메사**와 **이스라엘** 사이에 벌어진 전쟁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메사**와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의 기록을 보면, 성경이 말하듯, **오므리** 왕조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가 **모압**을 다스렸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5행). **메사** **석비**에 의하면, **오므리** 왕조로부터 40년간 지배 당했다고 하는데, 성경의 연대를 근거로 계산해보면, 북왕국의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에 이르기까지 4명의 왕들이 **모압**에 지배권을 행사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적어도 성경에서 말하는 왕들의 기록은 대단히 역사적이었습니다.

성경은 **아합**이 죽은 뒤, 그 아들의 때에 전쟁을 하였노라고 서술하는데 (왕하 3), **메사의 석비** 역시 6행에서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 전쟁의 결과도 성경이 말하는

바와 같습니다. 기원전 9세기에 기록된 **메사의 석비**에 당대의 역사가 그대로 담겨 있다는 사실에 놀랄 뿐입니다.

메사가 치른 전쟁의 기록이 알려준 또 하나의 중요한 정보는 **요단** 동쪽에 **갓** 지파가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요단** 동편에 **르우벤**과 **므나세** 지파와 함께 **갓** 지파가 정착하게 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민 32). 이 때 **갓**지파가 건축한 성읍 명단에 '**아다롯**'이 나옵니다. 성경과 마찬가지로 **갓** 지파가 **요단** 동편에 살고 있었으며, 그들이 **아타롯**에 살고 있었다는 정보를 알려주는 **메사의 석비**는 전쟁 승패의 진실과 관계없이 너무나 소중한 증언입니다.

처음 이 석비가 발견되었을 때, 문학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던 연구자들 가운데에서 **여호와**와 하나님 신앙이 매우 후대에 생겨난 것이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이나, 성경에서 말하는 왕들의 역사에 대한 진실성을 의심하던 학자들은 매우 놀랄 수 밖에 없었습니다. 19세기 후반의 일부 문헌학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유다**의 포로들이 만들어낸 창조적인 형태의 종교라고 주장했 더했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9세 기에 기록된 **메사의 석비** 17행과 18행에 딱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또는 야웨)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겁니다.

석비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 다. **메사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서 **느보** (Nebo) 를 점령했습니다. **느보**에는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던 제단이 있었던 듯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 중에 신전에 가져다 놓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의 사람들은 전쟁을 신들의 싸움이라고 생각했 기 때문에 전쟁에서 진 신을 상징 하거나, 그 신전에서 가장 소중한 게 생각하는 물건을 이긴 신의 신 전에 가져다 놓아, 승리를 자축하 는 거지요. 마치 11-13행에서 **아타 롯**을 점령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드리던 화로 (제

단?)을 **그리옷**에 있는 **그모스** 신전 으로 가져간 것처럼 말입니다.

메사는 **느보**를 점령한 후,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과 그 곳의 성 전(또는 성소)에서 어떤 물건을 가져다가 **메사가** 예배하던 **그모스** 신전에 두어 **그모스가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고 선언하고 싶었던 것입니 다. 이 사건을 자랑하면서, 석비에 새긴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름 “**여호와**”는 적어도 기원전 9세기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한 셈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이곳 저곳에서 등장하는 도시의 이름들과 고유 명사들이 석비에 기록되어 있는 데, 이것을 통해서 **구약** 성경의 역사 기록의 진실성이 입증되는 계기가 되니, 이 또한 놀라울 따름입니 다. 비록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모압** 왕의 손에 만들어진 석비이지만, 오히려 그렇기에 성경이 더 믿음직스러운 역사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 이 글을 쓰며 참조한 책들

엄원식. “모압과 이스라엘의 역사적 관계에 대한 일고”. *구약논단* 1[6] (1999): 175-201.

Archi, Alfonso. *Ebla and Its Archives: Texts, History, and Society*. Boston: De Gruyter, 2015.

Levy, Thomas E., Adams, Russell B., and Muniz, Adolfo. “Archaeology and the Shasu Nomads: Recent Excavations in the Jabal Hamrat Fidan, Jordan.” Pages 63-89 in *Le-David Maskil: A Birthday Tribute for David Noel Freedamn*. Edited by William Henry Propp, and Richard E. Friedman. Winona Lake: Eisenbrauns, 2004.

Smelik, K.A.D. “The Literary Structure of King Mesha’s Inscription.”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46 (1990): 21-30. 